

청정 자연의 관광지 화천



강 옥 / 자유기고가

강원도 화천군(華川郡)은 우리나라의 허리라 할 수 있는 중부지방 38도 선에 위치한 산간지역이다. 한편 금강산에서 발원하는 북한강이 중심을 흐르고 있는 아름다운 물의 고장이기도 하다. 화천군은 ‘동국여지승람’에 적힌 이지직의 시 구절대로 “구름이 가까워서 옷이 젖을” 만큼 높은 산이 많은 산악 지대이다. 땅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진 이 고장은 한 해에 눈 오는 날이 한 달을 넘는다. 또한 겨울철 기온이 영하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날이 적지 않다.

태백산맥의 머리끝인 금강산에서 서남쪽으로 뻗어 내린 광주산맥이 화천군을 거치면서 백산, 대성산, 백암산, 화악산, 적근산, 사명산 같은 천 미터가 넘는 산을 열 개나 넘게 만들어 놓았다. 또한 내금강의 장안사

앞 골짜기에서 흘러온 물이 북한강의 상류 줄기를 이루며 화천군의 동북쪽 끝에서 서남쪽으로 흐른다.

화천군은 땅 넓이로 따지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닌데도, 사방이 온통 산으로 막혀 있고 골짜기에 드문드문 흩어진 논밭의 넓이는 보잘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임산물이 풍부하여 옛날에는 이곳 나무를 벌채하여 북한강을 따라 뗏목으로 옮겨 한양의 궁궐을 짓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곳 사람들은 화전을 일구어 옥수수, 콩, 울무, 깨 같은 밭곡식과 길경, 천궁, 황기 같은 약초를 많이 재배하여 소득을 올리기도 하였다. 또한 산에서 숲을 곱거나 나무를 베어다 내다 팔아서 살림을 꾸리는 사람도 많았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와

나라에서 화전을 일구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바람에 화전민은 사라져 버렸다. 현재 화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중에서는 쌀, 콩, 팥, 옥수수가 주 작목이고 특히 가시오이, 애호박이 전국적으로 유명하다.

화천읍과 면 네 개, 곧 간동면, 하남면, 상서면, 사내면을 거느린 화천군은 한 때는 고구려의 땅 이었다가 또한 통일신라의 땅이기도 한 곳이다. 6.25 때는 바로 이 지역에서 전쟁이 발발하고 38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간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분단의 현장이기도 하다. 또한 화천군 간동면 오음리를 중심으로 1960년대 중반에 월남에 파병됐던 장병들이 여기에서 훈련을 받았다.

화천은 6.25 동란 이후에는 한때 군수산업의 영향으로 상업이 번창하기도 했으나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며 군세(郡勢)가 위축되어 갔다. 그러나 현재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한 사계절관광지로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화천은 이제 순박한 인심 속에 등산, 수상스포츠, 낚시, 계곡야영 등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레저의 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화천은 산간 지방이면서도 물의 고장이다. 파로호는 화천 9경 중 제1경으로 꼽히는 명소로 유명한 낚시터이다. 1943년 남한 최대의 화천수력발전소가 준공되면서 댐이 조성되고 호수가 생겼다. 원래는 대봉호라 불려지다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파로호

라 이름 붙였다고 한다. 1951년 5월, 우리 국군이 중공군 제10, 25, 27연대와 해병 1연대를 격전 끝에 화천저수지에 수장시켰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에 와 장병들을 격려하고 친필로 ‘파로호지(破虜湖池)’라고 써주었다. 이때 저수지 주변과 대이리, 풍산리 일대가 중공군의 시체로 뒤덮여 국군이 불도저로 시체를 밀어내면서 전진해야 할만큼 전투가 치열했다.

청정의 자연 속에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파로호는 낚시터로서 뿐만 아니라 가족, 연인들의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구만리 파로호는 선착장이 있는 곳으로 시조시인 이태극 시비, 전시관, 발전소, 꺼떡다리 등 볼거리가 많다. 국내 제일의 낚시터로 강태공들의 낙원인 파로호에서는 붕어, 잉어, 메기, 쏘가리, 빙어 등 각종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또한 낚시터 인근에 산재한 음식점에서 회덮밥, 쏘가리매운탕, 향어찜, 붕어찜, 달팽이 해장국, 어죽탕 등 지역 특색 별미를 맛볼 수 있다. 어죽탕은 물고기를 갈아서 죽을 쑤는데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일품이다. 사시사철 관광객이 즐겨 찾는 파로호는 서울에서 46번 국도를 따라 구리-청평-가평-춘천을 거쳐 화천군에 도착한 다음 오음리-도송리로 들어서면 된다. 이곳 오음리는 1960년대 말 월남 파병 장병들의 훈련장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하남면 계성리에는 보물 제496호인 화천

계성리 석등이 있다. 이 석등은 원래 위치에서 약 200m 옮겨져 현 위치에 세워진 6각형 석등으로 전체 높이가 2.3m이며 간주석의 높이는 1.16m이다.

이 석등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양식에서 벗어나 4각형과 더불어 6각형이 초기에 조성되었다. 4각형에 비해 희소한 6각형 석등은 전국에 겨우 4기가 있는데 이 석등은 그중 하나이다. 이 석등의 건립 연대는 명확하지 않으나 고려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형태가 완전한 이 석등은 간주석과 상륜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제가 모두 6각형으로 되어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화사석이 6매석으로 결구되어 있는 점과 전면에 나 있는 화창(花窓)이 타원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점이다. 간주석은 가늘고 긴 고동형(鼓胴形)으로 상·중·하에 각각 하나씩 고풍을 배치하였다. 각 고풍에는 세 줄로 된 4엽화문을 큼직하게 배치하였고 그 사이에 큼직한 자방을 갖춘 8엽의 단판연화와 운문을 가득 조각하였다.

화천 9경의 하나로 꼽히는 화악산은 화천군 사내면과 경기도 가평군 북면의 경계에 위치한 명산으로 수많은 등산객들이 찾는다. 1,468m의 높이로 38선을 가로 지르는 화악산은 6.25때 치열한 전투를 치른 격전의 현장이기도 하다. 등산 코스는 사내면 삼일리에서 출발하여 법장사 및 화음동정사지를 돌러보고 촛대바위를 따라 내려오다 다

시 화악터널을 지나 화악산 정상에 오르게 된다. 등산로 주변에는 화음동계곡, 삼일계곡, 곡운계곡 등이 수려한 풍광을 자랑한다.

삼일리에 있는 화음동정사는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 곡운 김수증 선생이 은거하며 후학들을 가르치던 곳이다. 강원도 기념물 제63호로 지정된 화음동정사 유적은 조선시대 성리학의 구체적인 행동양식과 외형적인 모습을 파악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적은 화음계곡의 용달천 지류 약 40m 반경을 중심으로 누각, 정자, 서재 등의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이곳에 도로가 나서 정사 일대가 많이 침식되었다. 조선조 조형예술의 색다른 미를 보여주는 이 유적은 인정사터, 바위, 축대, 계곡, 경계석 등의 명칭과 바위에 새겨진 글들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입증하고 있다. 이곳은 김시습, 정약용, 송시열 선생 등 당대의 석학들도 다녀갔던 곳으로 길이 13m, 너비 11m의 자연 그대로의 바위에는 태극도가 암각되어 있다.

화천군은 산기슭을 깎아서 만든 천둥지가 많아서 비가 제때에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짓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다. 화천군에서 남쪽인 간동면과 하남면 사이의 꼭대기에 춘천시가 내려다보이는 해발 853m의 용화산이 있다. 등산로가 좋고 벚튼바위, 도둑바위, 마귀할미바위, 아들바위, 광바위, 주전자부리 같은 잘생긴 바위와 늙은 소나무가 많아 볼거리가 많다.

이 산은 그 언저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제삿터로 쓰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이 산신당을 지어놓고 수태지를 잡아서 이곳에서 해마다 봄과 가을에 기우제를 지냈다. 산과 강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내던 산천제의 풍습은 현대에 들어와 미신타파의 영향으로 없어졌지만 이곳은 때때로 기우제를 지내는 제삿터의 구실을 한다. 화천을 대표하는 명산으로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용화산 바로 밑 삼화리에는 온천이 있으며 산 정상에는 맥국성지가 있고 성불사 절터가 남아 있다.

화천군 간동면 평화의 댐 DMZ 전방지역 백암산의 한 중턱은 가곡 ‘비목’의 발상지로 유명해진 곳이다. 6.25때 이름 모를 아까운 젊음들이 산화한 이곳에서 국민가곡 ‘비목’이 탄생했는데 여기에는 애뜻한 사연이 있다.

196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평화의 댐 북방 14km 백암산 계곡 비무장지대에 배속된 한 장교는 잡초가 우거진 곳에서 돌무덤 하나를 발견한다. 녹슨 철모, 이끼 덮인 돌무덤 주위로 저녁노을은 깊게 물들어가고 그는 돌무덤의 주인공을 그리며 깊은 상념에 젖는다. 조국을 위해 산화한 젊은이의 넋을 기리는 ‘비목’의 가사는 이렇게 탄생되었고 이 노래는 가곡으로 널리 애창되었다. 그 가사를 쓴 초급장교가 바로 한명희씨이다. 이곳은 이제 비목공원이 조성되어 전우의 넋을 기리며 통일 의지를 다지는

안보 관광지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주차장 입구에는 ‘비목’ 노래비가 서 있으며 해마다 6월 6일을 전후해 ‘비목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관광객들은 비목공원과 함께 파로호, 화천댐, 화천수력발전소를 연계해서 함께 둘러볼 수 있다.

북한강 상류에 위치한 화천은 오염되지 않은 청정 자연으로 1급수의 하천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맑고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산천어가 살고 있다. 청정어족인 산천어는 연어목 연어과로서 냉수성 토종 민물고기이다. 또한 등에 나타나 있는 무늬가 눈부시게 아름다워 ‘계곡의 여왕’이라고 불린다.

희귀어종인 산천어는 살이 단단하여 한점 입에 넣으면 쫄득쫄득하다. 민물회 중에서 고급 어족으로 꼽히는 산천어회는 엷은 분홍색과 노란색을 띄우며 부드럽게 씹어 넘기면 달콤한 뒷맛이 난다. 산천어는 예로부터 중국에서는 신선이 먹었다고 하며 일본에서는 노약자의 약재로서 손꼽히고 있다.

얼음나라 화천에서는 매년 1월경 화천천에서 ‘화천 산천어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축제 기간 중 화천에는 산천어 이색 체험을 만끽하기 위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다. 이 축제에서는 오직 화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산천어 얼음낚시’를 비롯해 썰매 콘테스트, 얼음나라 열차, 얼음 축구, 산천어 맨손잡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다. 🍷